프롤로그—한국 보수의 진화가 시작됐다 · 10
| 이제 행동하고 머리 쓴다 |

1부 한국의 보수, 그들은 누구인가 – 보수 인맥지도

① 뉴라이트, 대선 · 총선 동시석권 노린다 · 20
| 뉴라이트의 탄생과 성장 |

② 전향 주사파에서 우파 인터넷 논객까지 · 27
| 교과서포럼 등 8개 단체 '뉴라이트네트워크' 결성 |

③ "뉴라이트는 이명박, 올드라이트는 박근혜 선호" · 32
|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 |

④ 행동하는 보수 "돌격! 앞으로" · 48
| '올드라이트 전위대' 군출신 모임 |

⑤ "한나라당 후보만 지지하란 법 없다
좌파정권 종식 단일 후보 지원할 것" · 55
|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|

⑥ 진보보다 빠르게 대선 레이스를 뛴다 · 68
| 보수 지식인 그룹이 바빠졌다 |

⑦ "과거 보수, 헌신성 없고 현실에 안주" · 72
|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|

⑧ 보수 인터넷, 대선 '킹메이커' 꿈꾼다 · 87
| 보수 미디어—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|

⑨ "왜 우파진영엔 '신해철' 이 없는가" · 95
| 류근일 전 〈조선일보〉 주필 |

⑩ 대학생은 진보적? 편견을 버려라 · 113
| 청년 · 대학생 그룹 |

⑪ "3기 좌파정권, 기필코 막는다" · 120
| 이기권 자유사랑청년연합 운영위원장 |

⑫ '사립학교 이중대' 냐, '대선 지킴이' 냐 · 129
| 교육—1년 동안 8개 조직 신설 |

⑬ "사학법 자체가 없어져야, 나는 전교조가 두렵다" · 134
| 조전혁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공동대표 |

⑭ 전향 386 '북한 붕괴론' 부활시키다 · 146
| 북한민주화 · 반북단체① |

⑮ 탈북자 1만 명 시대, 정치적 목소리 커졌다 · 152
| 북한민주화 · 반북단체② |

⑯ "2008년 베이징올림픽이 북한체제 붕괴 분기점" · 159
| 한기홍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대표 |

⑰ 목사들, 정권교체 위해 거리로 나오다 · 180
| 기독교 보수진영 |

⑱ "차기 정권은 하나님이 세우게 될 것" · 187
| 신신묵 한국교회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|

2부 보수와 진보, 보수와 보수가 서로 논쟁하다

① 지금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의미는 무엇인가 · 210
| 김정훈 교수 vs 최홍재 자유주의연대 조직위원장 |

② "민중주의자에서 자유주의자로… 민자당 입당, 후회해본 적 없다" · 220
| 노동운동가 → 보수정치인 김문수 경기도지사 |

③ 이제 '노동운동가 김문수'를 놓아드립니다 · 240
| 조승수 전 의원이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|

④ "차기 정권 임기 중 북한변화 가능성, 현실적 대북정책 펴는 대통령 선호" · 247
| '주사파 대부' → 북한민주화운동가 김영환 |

⑤ 집 나간 '시대정신' 김영환, 제자리로 돌아오라 · 266
| 심진구 씨가 '강철 김영환'에게 |

⑥ "노동자의 현실적 희망은 한나라당" · 272
| '최초 지하철파업' 배일도 의원 |

⑦ "일도 형, 노동자 우롱 말고 그냥 보수 하세요" · 298
| 임성규 전 서울지하철노조 사무국장이 배일도 의원에게 |

⑧ "'뉴'냐 '라이트'냐, 정체성을 찾아라" · 306
| 박효종 교수 vs 홍윤기 교수 |

⑨ 대한민국은 보수가 만든 게 아니다 · 321
| 진보 논객 이재영이 본 한국의 보수 |

⑩ 한나라당, '노블레스 오블리주'가 없다 · 329
| 뉴라이트 최영재의 눈에 비친 한국의 보수 |

⑪ "한국 보수, 거대언론과 손잡고 저항, 한나라당 집권해도 극우로 못 간다" · 338
'체제 내 리버럴' 남재희 전 장관이 본 한국의 보수

3부 2007, 보수의 세상은 다시 올 것인가

① "정권교체 위해 신당도 접었는데… 손학규의 탈당은 적전 분열행위" · 358
뉴라이트 진영의 대선전략

② '진보' 적으로 운동해서 '보수' 적으로 정권교체 · 365
빠르게 진화하는 우파 대선전략

③ "한나라당에 '40대 김용갑' 많아져야… 분열 안 하면 2002년 대선보다 유리" · 369
유석춘 한나라당 참정치본부장

④ "이명박 ·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정권인가? 한나라당도 이합집산할 것" · 385
김상철 자유지식인선언 공동대표

⑤ 이명박은 '줄타기', 박근혜는 '흔들기' · 400
한나라당, '보수'로 대선 승리할 수 있을까